

### 제3의 어업 : 즐기는 어업†

김 수 관\*

## The Third Fishery : Enjoyable Fishery

Kim, Soo-Kwan

〈 목 차 〉

I. 머리말	IV. 즐기는 어업의 활성화 방안
II. 즐기는 어업의 개념 및 종류	1. 문제점
1. 즐기는 어업의 개념	2. 활성화 방안
2. 즐기는 어업의 종류	3 기대효과
3. 여타 개념과의 비교	V. 맺는말
III. 즐기는 어업의 국내외 사례	참고문헌
1. 국내 사례	Abstract
2. 국외 사례	

### I. 머리말

오래전 어촌생활의 根底는 바다를 태생적으로 받아들였던 '숙명적'인 삶이 있었고, 근래에 들어서는 수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산업적' 삶이었다면, 앞으로의 '어촌'에는 '자연친화적' 삶이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어촌사회에서의 인간은 자연에 의해 지배당하였고, 현재는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자연과 인간이 相生하는 사회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각으로 근래 어촌의 모습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 낮은 소득, 환경파괴라는 긴급한 문제가 놓여 있어 이미 숙명적 삶이나 산

접수 : 2004년 9월 5일      게재확정 : 2004년 11월 20일

† 본 연구는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군산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업적 삶도 이미 매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도시로 그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지 오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시의 에너지를 흡인하여 어촌지역의 활성화라는 과제를 풀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어촌이란 영해와 영토의 보전기능, 공익적 자연환경이라는 무한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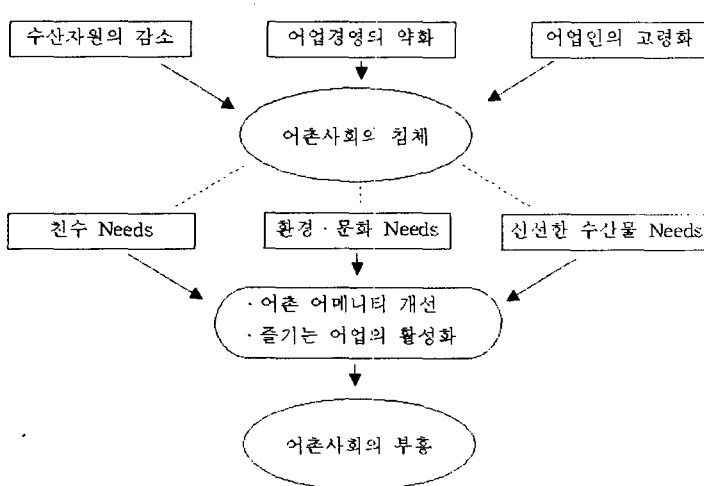
최근 어촌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긍정적인 현상은 어촌에 짧은 기간동안이나 머물고자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어촌이라는 '자연환경'을 찾아 어촌에서 휴식과 위락 등으로 삶의 여유를 취하려는 사회적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에서의 근무시간의 단축, 도로 및 교통수단의 발달, 가처분소득의 증가 등의 여건이 충족되고, 일상적인 도시생활을 일시적이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맞물려 일어나는 사회적 경향으로 보인다.

이는 어촌에서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주요 산업인 어업, 양식업 등이 여러 국내외적 환경 요인으로 크게 쇠퇴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촌의 토착민들에게는 경제적인 수입의 증가와 人的交流의 기회가 되고 있어 좋은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림 1-1)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어촌으로의 과다유입은 기존 형성된 어촌의 공동체의식의 파괴나 잘 보전된 자연환경 등의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면도 적지 않다.

이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촌의 삶을 지배할 자연환경적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어촌의 어메니티(Amenity)를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定住 또는 滯留할 수 있는 人的市場을 개발하는 일이며,



<그림 1-1> 어촌사회의 침체와 부흥

다른 한편으로는 어촌의 본업인 어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어업인 '즐기는 어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전자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삼고, 본 연구에서는 즐기는 어업에 관해서만 살펴보고, 그의 개념의 설정과 활성화방안을 제시해 본 것이다.

## II. 즐기는 어업의 개념 및 종류

### 1. 즐기는 어업의 개념

현재까지 국내에서 즐기는 어업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으나, 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觀光漁業<sup>1)</sup>과 우리나라의 漁村觀光이라는 용어이다.

먼저 일본에서 사용된 日高健(2002)의 정의를 살펴보면, “관광어업이란 非日常의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해안에 가서, 혹은 선박으로 해상으로 이동하여, 어업의 조업풍경이나 해상의 경관을 봄으로써, 또는 어로작업을 보조적으로 행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광어업이란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와 같이 어업자가 주체가 되어 도시민들에게 어민의 고유한 직업 및 생활방식 등을 보여주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를 촉진시켜 어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새로운 어업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어업은 지금까지 어업의 범위인 '잡는 어업(Catching Fishery)'과 '기르는 어업(Farming Fishery)'의 영역을 벗어난 새로운 어업개념이라고 생각하며, 본 연구에서 말하는 '즐기는 어업(Enjoyable Fishery)'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어로어업을 '잡는 어업', 양식어업을 '기르는 어업'이라는 용어가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어업 대신 '즐기는 어업<sup>2)</s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즐기는 어업은 어촌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며, 외부의 자본이나 개발업자에 의해 파생되는 지역특성의 무시, 환경파괴, 지역민과의 갈등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촌의 주요산업인 어업을 유지하면서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代案의 어업이라고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어업이라는 용어는 개념정립이 없이 산발적으로 사용되고 경우가 있다.

2) 사전적으로 '즐기다'는 '마음에 흐뭇하여 기뻐하다' '좋아하여 마음을 쏟다' '행복스런 마음을 갖다' 등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의 주체가 어업자이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즐기는 어업'도 어업자가 주체임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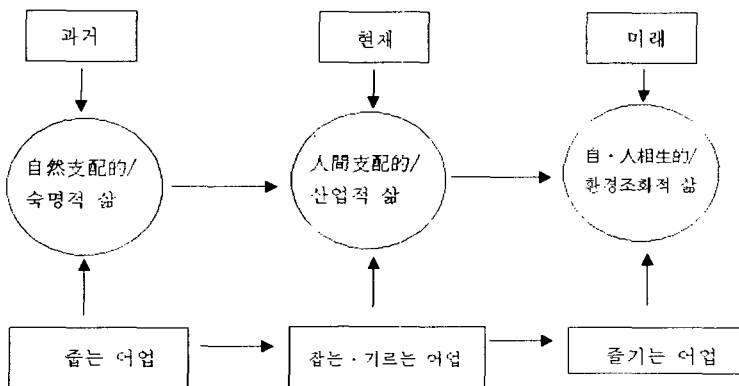
많은 어촌은 도시와 어우러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수산업은 도시와의 연관성에서 중요한 하나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수산업자가 직접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행하는 활동의 한 종류로서 기존의 어업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의 어업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길어지고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건강유지를 위해 밀폐된 공간을 떠나 개방된 자연속에서 관광을 즐기려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기존 수산업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환경대응적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앞에서 언급한 어촌의 생활근저와 연관시켜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의 어촌은 자연이 인간을 지배한 형태였고, 그에 따라 어업도 극히 수동적인 줍는 또는 채취(Picking & Gathering)의 형태를 벗어날 수 없었고, 현재에 이르러 각종 산업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어촌에는 소규모에서 대규모 수산업이 형성되었고, 어로(Catching)어업에 이어서 양식(Farming)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부터 미래에는 기존에 어촌의 인간지배적 또는 산업적 형태가 한계에 이르는 바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촌형태가 존재할 것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적인 관계의 설정이고, 그에 따라 어업도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형태인 즐기는 어업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산자원의 보호차원에서 어획을 금지한 일부 지역의 연안어업이 현재 經濟産業的으로는 성립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체험과 관광을 주로 하는 文化産業的으로는 그의 존재가 가능할 것이며, 어촌과 해당어업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될 것이다.



<그림 2-1> 어촌생활의 근저와 어업의 변화

### 제3의 어업 : 즐기는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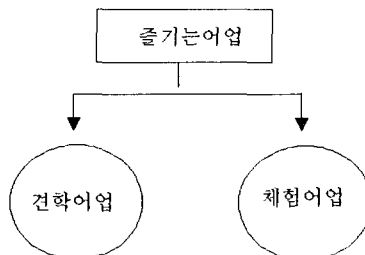
한편, 이런 즐기는 어업보다 폭넓은 범위로 우리나라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김성귀 등(2001)에 의한 ‘어촌관광’은 “어촌의 바다와 도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일어나는 관광, 레저, 스포츠 목적의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비교는 후술하기로 한다.

## 2. 즐기는 어업의 종류

앞에서 H高교수가 정의한 관광어업은 ‘보는 어업’과 ‘하는 어업’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본 연구의 즐기는 어업의 범위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여기고, 본 연구에서도 즐기는 어업(Enjoyable fishery)을 「보는 어업(Watching fishery)」과 「해보는 어업(Doing fishery)」으로 나누고자 한다. 이를 다시 「보는 어업」은 靜的관광어업으로서 ‘見學漁業’으로, 「해보는 어업」은 動的관광어업으로서 ‘體驗漁業<sup>3)</sup>’으로 命名하고자 한다.

이러한 즐기는 어업을 통해서 반복되는 일상생활로부터의 일탈감을 느끼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는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연환경을 체험함으로써 자연의 일부분으로 동화되고,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즐기는 어업은 최근 관광의 추세인 ‘보상과 보람이 있는(Rewarding) 관광’,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Enriching) 관광’, ‘학습적인(Learning) 관광’ ‘보험적인(Adventuresome) 관광’ 등의 현상(이광희·김영준, 1999)에 맞추어 각 어촌이 실행할 만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림 2-2〉 즐기는 어업의 종류

3) 體驗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 일, 또는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체험은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가 아닌 異文化的 요소에 대한 접촉이며, 단순히 보고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관광대상지에서의 다양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있어 앞의 見學어업과 구분하였다.

## 1) 견학어업

### (1) 조업광경 견학

도시민들은 어선에 직접 승선하는 기회 자체만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해상에서 볼 수 있는 어장(정치망, 어로작업) 및 양식장(수하식, 부류식 등)에서의 다양한 조업광경 등 바다산업의 독특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정서적 안정감 및 교육적 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어업자들에게 숙박 및 야영시설 등의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2) 어획물 매매 견학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어획물의 매매광경은 독특한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어획물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위판장일 경우에는 도시민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다. 매매를 하기 위해 진열된 어획물을 통해서 어획물의 종류나 특징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어획물의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재래식 경매 및 입찰의 모습은 산업유산적 성질을 띠고 있어 매우 의미있는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다.

### (3) 수·해양문화에 대한 탐구학습

어촌에서의 특수한 생활양식을 소개할 수 있는 역사적인 각종 도구 및 자료, 어로용구 등을 수집하여 전시할 수 있는 어촌생활전시관, 소형박물관 등은 어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일반시민들에게 어촌생활을 이해시키고, 바다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공간은 다른 관광프로그램과 연계시킴으로써 풍성하고 뜻깊은 어촌관광의 효과를 거두게 할 수 있다.

## 2) 체험어업

### (1) 어로(양식)작업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자의 작업을 견학하거나 어로작업(낚시어업, 낭장망 등)에 보조적인 작업을 체험하고, 또는 양식장에서 직접 양식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어업작업을 경험케 하는 '주말어장' 과 같은 기회의 제공은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여가를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직접 어획한 신선하고 안전한 생산물은 값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어업과 관광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어업형태가 될 수 있다.

### (2) 낚시체험

각지의 어촌지역에는 아름다운 섬들이 산재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암반층이

### 제3의 어업 : 즐기는 어업

형성되어 있어 유어낚시에 적당한 곳이 많다. 최근 여가시간의 증가와 함께 낚시인구의 상승현상을 배경으로 전국의 낚시취미를 갖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이벤트 행사를 갖는 것도 지역의 청정한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동시에 민박업도 병행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 (3) 어획물에 대한 가공처리 및 요리체험

소득수준의 향상과 먹거리의 품질지향적인 소비현상으로 건강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섭취하려는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지역수산물의 대한 올바른 상식과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고, 實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먹는 즐거움' 과 '행하는 즐거움' 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은 궁극적으로 수산물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4) 해변 수산물채취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는 대부분 미용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여가활동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활동은 자연접촉형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의 하나인 해변(갯벌)이 그 체험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을 파악하고 해변에서 서식하는 수산물(김, 미역, 조개 등)을 채취하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은 독특한 관광매력을 가질 수 있다.

#### 5) 전통어업 체험

변화된 수산업환경과 그에 따른 정책 등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적 어업(독살, 주목망, 낭장망 등)을 어촌에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즐길수 있게 하고, 어획물은 현장에서 맛보게 하여 전통어업의 새로운 산업적 부활을 시도한다. 이는 하나의 産業遺産으로서 보전·계승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구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어촌관광의 위와 같은 즐기는 어업의 종류는 김성귀 등(2001)이 말하는 어촌관광의 유형에서 활동별유형<sup>4)</sup>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 3. 여타 개념과의 비교

앞에서 언급한대로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즐기는 어업과 비교대상이 되는 용어

4) 어촌관광의 유형을 자원유형별, 체제유형별, 공간유형별, 지형유형별, 활동유형별로 나누고 있으며, 활동별 유형에는 수산물시식형, 바다낚시형, 해수욕형, 생태체험형, 해양스포츠형, 어촌경관형, 어촌역사문화형으로 나누고 있다.

를 들어보면, '관광어업' 과 '어촌관광' 을 들 수 있다. 이들을 비교해보면 그 개념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관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즐기는 어업' 과 '관광어업' 과의 비교에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로어업을 잡는 어업, 양식업을 기르는 어업이라고 통용되고 있듯이 '즐기는 어업' 을 '관광어업' 에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 점은 辭典的 용어의 차이 뿐이다.

그러나 김성귀 등(2001)의 어촌관광은 용어상 어촌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즐기는 어업은 어업이라고 하는 어촌의 기본적 성립요건에 초점을 두고자 한 점이 비교된다.

또한 정기환 등(1999)은 어촌관광을 자연적 관광(백사장, 바다갈라짐, 일출·물 등), 산업적 관광, 문화적 관광(풍어제, 토속음식, 어선제작 등), 위락적 관광(호텔, 민박 및 캠프, 횃집, 관광용어선)으로 대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촌관광의 범주에서 즐기는 어업은 산업적 관광자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5)</sup>.

더 나아가 가끔 쓰이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어업(Recreational Fishery)과의 차이는 그 내용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레크리에이션활동은 動的인 개념으로 쓰이면서 여행, 산행, 휴가 등의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레크리에이션 어업은 본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즐기는 어업의 구성요소인 체험어업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으며, 견학어업은 거의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레크리에이션 어업은 즐기는 어업의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Ⅲ. 즐기는 어업의 국내외 사례

#### 1. 국내사례

우리나라에서의 즐기는 어업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이를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공식적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해양수산부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sup>6)</sup>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어촌관광의 진흥책에서 선정된 마을은 그의 프로그램이 즐기는 어업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으며, 그의 활성화에 點火的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표 3-1 > 에서 나타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몇 어촌체험마을의 주요 프로그램은 본 연구의 즐기는 어업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5) 산업적 관광자원에는 포구, 어선접안시설, 활어공판장, 수산물 채취장, 수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산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6) 어촌체험마을(2004년도 12개소), 어촌민속전시관걸립(200년도 4개소), 지역특산어류전시관걸립(2004년도 1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3의 어업 : 즐기는 어업

〈표 3-1〉 국내 즐기는 어업의 사례

마을명	주요프로그램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진두마을)	갯벌체험, 패류채취 및 시식, 망둥어 낚시, (해상경관체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선감마을)	갯벌체험, 바지락갯갈담그기, 맨손어업체험, 건각망체험, 갯바위낚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제부마을)	갯벌체험, 맨손어업, 해상경관체험, 낚시유어선, 바지락가공체험
강원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마을)	정치망어업체험, 수산물위판, 정치망유자망조업, 야간 오징어잡이, 미역채취, 가리비양식체험, 방게잡이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송석마을)	양식장체험, 자하갯담그기, 조개류양식어업, 건각망어업, 갯벌탐사, (조수변화관찰)
충남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다사리마을)	김양식체험, 어선어업체험, 바다낚시체험, 갯벌체험, 독살체험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하전마을)	갯벌맨손낚시, 김·미역말리기, 장어요리체험, 축제식 낚시
전남 진도군 임호면 죽림리(죽림마을)	주낙·채낚기체험, 해조류 채취체험, 김가공건조, (해양체험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하저마을)	어선승선체험, 조개잡이, 갯벌체험, 바다낚시, (도요지체험)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대진 마을)	수산물위판, 어종의 성장관찰 및 영상관람, 과메기만들기, 정치망조업, 양식어업체험, 조개줍기, (스킨스쿠버)
경북 영덕군 영덕읍 대탄리(대탄 마을)	정치망체험, 미역채취 및 건조, 은어잡이, 퉁발 및 호망어업체험, 소형어선노뜨기, 채경어업, (스킨스쿠버)
경남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문항 마을)	원시돌발어업, 낚시유어선, 갯바위낚시, 갯벌맨손체험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냉천 마을)	갯벌체험, 각망어장체험, 야간햇불조업, 바다낚시
부산 강서구 대항동(대항 마을)	육소장망승어잡이, 호망대구잡이, 김양식장체험, 갯바위낚시
제주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고산마을)	트롤링어업, 한치오징어 말리기, 트롤링, 야간배낚시, 갯바위낚시

주 : ( )는 즐기는 어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촌어메니티와 관련이 있음.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2004.

## 2. 국외사례

즐기는 어업의 국외사례(수협수산경제연구원, 1995)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長岐縣 石田町漁協의 도미망(선인망) 체험어업<sup>7)</sup>, 福井縣 美浜町 낚시센터운영<sup>8)</sup>, 茨城縣 北茨城市 民泊協會 정치망 관광선 운영<sup>9)</sup>, 德島縣 北灘漁協 靑壯年部 소형저인

7) 50여명이 목봉과 같은 위험도구를 사용하여 근해에서부터 도미군을 추격하여 연안에 이르렀을 때 그 물로 포위하여 잡는 어법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어선은 지휘선 1척, 망선2척, 추격역할을 하는 배 10여 척이 선단을 이룬다. 1989년에 관광업과 연결되어 8년만에 부활되었다. 町내의 어업자들로부터 '전통적인 어법인 도미망어업을 경험자가 생존해 있을 때, 젊은 사람들에게 계승'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町의「故郷荳生事業」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은 도미망조합을 조직하고, 관광어업으로 부활시켰다.

8) 각 어업자가 소유하는 어선을 소속선으로 하여 유어자의 수에 따라 승선출어하며, 외출낚시에 의한 야간 오징어, 전갱어, 도미, 보리멸낚시, 감성돔 멧목낚시 이외에도 겨울철 호수면에서 빙어낚시 등 다양한 遊漁를 통하여 관광어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9) 5톤정도의 소형어선에 승선하여 연안(약 2km)의 정치망어장에 도착하여 선상에서 정치망어업을 직접 보고 정어리, 도미, 농어, 날치 등의 살아있는 고기를 잡는 즐거움을 맛본다.

망 고기잡이<sup>10)</sup>, 千森縣外川 漁協 수산교실운영<sup>11)</sup>, 三重縣 鳥羽市 어로용구 보존시설<sup>12)</sup>, 富山縣 魚食普及協議會 여학생 바다고기 요리교실<sup>13)</sup>, 長崎縣 鹿町町漁協 주말가족 양식사업<sup>14)</sup>등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즐기는 어업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많은 도시민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즐기는 어업은 지자체와 어업단체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크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적 어업의 공백을 메우면서 도시와 어촌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 IV. 즐기는 어업의 활성화 방안

##### 1. 문제점

먼저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어촌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가지 대안으로 논의되어온 어촌관광은 어촌의 생명력의 원천인 어업을 과연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곳에서 살아왔던 어민(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봉착해왔다. 다시 말하면, 어촌관광이 이루어진 경우, 어촌의 본업인 어업과 어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의문시되어 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촌관광은 당해어촌의 외부에서 자본이 유입되어 지역의 고유의 자원, 전통, 문화와 역사를 무시한 채 어촌 본연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는 外因的(Exogenous) 개발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일

- 
- 10) 어항에서 어선을 나누어 타고 저인망, 혹은 참돔의 소형정치망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육상에서 조리해서 먹거나 포장하여 집으로 가져가게 한다 독일의 Fedderwardsiel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새우껍질까지 대회를 개최하고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한다". 어업현장을 목격한 적이 거의 없는 관광객들은 어선에 동승하여 친교를 나누고 어획하는 상황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 11)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산교과 선생님들에 의한 기초적인 교과 외에, 지역어협청년부에 의한 물고기의 습성을 이용한 어구의 작성, 사용방법 등의 실습과 병행하여 어업조사선에 체험승선하여 최신 항해계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들 기구의 조종조작의 체험과 부근에서 조업중인 어선의 조업실태를 관찰하고, 현이나 시의 수산업현황과 시책, 조합운영 등에 대해서도 강의를 받는다.
  - 12) 어로용구, 어촌생활도구, 항해용구, 어촌문서 등 어촌생활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지적호기심을 자극한다. 전시 이외에 조사활동을 벌여 『縣内の 수산도감』, 『海의 도감』, 『海와 인간』 등의 책자를 발간하여 일반시민들에게 어촌생활을 이해시키고 바다의 중요성을 일깨워 수산진흥에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13) 1985년 어업협동조합, 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가공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富山魚食普及協議會를 결성하고 일반소비자나 여학생을 대상으로 바다고기요리교실을 개최하여 수산물섭취보급운동을 벌이고 있다.
  - 14) 주말에 소비자를 양식장에 초대하여 자연을 즐기면서 견학이나 체험을 느끼게 한다. 마을의 진주와 양식어의 소비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양식동과 양식진주의 소유주가 되는 구좌를 팔고 있다. 또한 관광선으로 양식장을 견학하고 선상에서 점심식사회, 돛치어의 기념방류사업도 동시에 실시하여 수산업을 관광객에게 이해시키고 있다.

적인 개발로 인해 자연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된 경우가 많아 토착민들에게 장기적 입장에서 경제·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어촌관광으로 인하여 어촌의 주요 산업인 어업(넓은 의미)이 붕괴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어촌관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역주민인 어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 산업, 문화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內因的(Endogenous) 개발의 당위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곧 어촌에서 대규모 단지조성의 획일적인 개발보다는 소규모이지만 지역성에 바탕을 두고 다양하고 개성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이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어업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다면, 그의 새로운 산업으로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광어업의 활성화라는 시각으로 전국의 어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관광사업을 보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 표 3-1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촌체험마을이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는 곳은 고작 몇 곳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어촌의 관광개발형태가 축제의 개최<sup>15)</sup>에 치우쳐 있고, 즐기는 어업개발을 소홀히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즐기는 어업의 형태를 보더라도 체험어업 중의 하나인 갯벌체험에 주로 국한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즐기는 어업의 개발에 대한 조사 및 그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어촌 및 해양관광단지조성계획(전라북도, 1988)을 살펴보면, 도입시설에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레포트센터, 컨벤션센터, 카지노, 마리나, 민박촌, 해수욕장, 요트장, 관광유람선 등이고, 검토시설에는 테마공원, 골프장, 민속촌, 수족관, 노인휴양촌, 관광농원, 청소년수련원, 연수원, 삼림욕장, 자연학습원, 수영장, 자동차야영장, 승마장, 공연장 등이다. 이러한 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촌 고유의 산업과 특성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사업보다는 도시의 상업적 시설을 어촌이라는 지역공간에 일방적으로 건립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매우 짙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어촌 고유의 어메니티 및 삶의 방식을 오히려 파괴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15) D지역의 쭈꾸미 축제, 전어축제, 젓갈축제 등 수산물축제, 그리고 J지역 어촌체험마을의 계획을 보면, 수변광장, 다목적운동장, 극기훈련장, 청소년수련원, 해양문화전시관, 자연학습체험장, 천체관측소, 야외무대, 야영장, 조경휴게지, 휴게광장, 쉼터 등의 조성으로 되어 있어 즐기는 어업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함을 볼 수 있다.

## 2. 활성화 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촌 고유의 특성을 살린 관광사업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1) 지역관광의 정체성 확립

지역의 즐기는 어업의 활성화는 지역관광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는 기초적 작업이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많은 어촌에서 실시하는 어촌관광의 획일적인 콘텐츠(Contents)로서는 각 어촌 고유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각 어촌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즐기는 어업의 형태를 경유형, 체류형, 주거형 등으로 나누고,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유용자원인 해양성기후, 해수, 해저진흙, 갯벌, 바다의 동식물 넉넉한 자연 등을 활용하여 연중 관광지화 내지는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복지증진이나 어촌지역 인구의 증진책으로 '건강과 휴양의 어촌'을 추진해볼만 하다.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환경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건강과 휴양의 어촌'을 지역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어촌의 쾌적성(Amenity)의 향상과 함께 살고싶어 모여드는 어촌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 2) 지역별 '즐기는 어업'의 개발

어촌을 유지·발전시키는 에너지원으로서 어촌계가 자리잡고 있다. 각 어촌계는 기존의 어업의 쇠퇴에 따른 대체어업으로서 각 지역특성을 살린 즐길수 있는 어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에 의한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일환으로 사라지는 연안어업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보기' 등을 체험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획물은 직접 요리하게 하거나 제공한다면 좋은 지역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낚시어업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적극적인 낚시어장의 개발과 함께 낚시공원(Leisure Fishing Park)을 조성하여 최근 강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가족단위 등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단체중심의 낚시어장의 개발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전국적인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마케팅(Community Marketing)을 조직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낚시어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초투하사업·방류사업·종묘배양사업 등의 인프라사업이 관·학·민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예부터 이루어져 왔던 어업(독살 등)을 산업유산의 관점에서 견학어업이나 체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어촌계 특유의 어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어촌계 1즐기는 어업'이 자율적으

로 이루어져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보전→활용의 단계를 충실히 지킴으로써 블루투어리즘(Blue Tourism)의 핵심을 차지하면서 부수적 관광효과를 더불어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 3) 1日 수산학교의 운영

어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즐기는 어업을 위시해서 어촌관광의 형태가 거의 경유형이 많아 어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체류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습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존의 폐교 등을 이용해서 주말 또는 휴일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즐기는 어업의 학습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도시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즐기는 어업의 정착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실행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수협, 학교(대학) 등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어촌어메니티 개선과의 연계

어촌지역은 어업문화 이외에 다양하고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어촌의 역사문화성은 어촌어메니티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에코뮤제<sup>16)</sup>의 추진이 요구된다.

에코뮤제의 기본적인 요소인 박물관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박물관의 유치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의 어촌생활에서 갖고 있는 각종 역사·문화재적 유물을 한군데 모아 전시하는 것도 훌륭한 박물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민박집이나 식당 등에서도 오래된 생활용품 등을 전시해 놓으면 위성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거기에 어촌생활 이외의 지역문화재<sup>17)</sup>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Discovery trails)를 만들어 놓는다면 자연의 원시성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즐기는 어업의 프로그램과 함께 관광객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관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5) 도시와 자매결연 및 회원제의 도입

도시민들은 도시의 공해와 인심의 황폐화, 과밀 등을 탈피하여 시골에서 전원적이고, 여유로움을 찾고자 하고, 반면에 도서주민들은 과소화, 지역경제의 부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의 경제력에 의존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호간 니즈(Needs)의 존재

16) 1960년대 프랑스에서 지역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자연공원의 문화시책으로 탄생하였다. 에코뮤제의 구조는 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territory),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산을 배우는 기능을 갖고 있는 복수의 독립적인 위성박물관(satellite museum), 에코뮤지움의 본부라 할 수 있는 중심박물관(core museum), 그리고 지역의 자원과 유산을 발견하는 길로 위성박물관에 부속하여 꾸며져 있는 발견의 길(discovery trails) 등을 들 수 있다.

17) 각종 도서지방에 있는 조개무덤, 수군기지, 초분, 설화와 무속 등.

에 따라 어촌학교↔도시학교, 어촌마을↔도시마을, 어촌단체↔도시단체 등이 상호교류를 통해서 이질적인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어촌친척제도」를 도입하여 더욱 친밀한 관계설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한 수의 회원제의 도입은 과잉수요의 비경제효과를 방지하고 소비자관계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어 즐기는 어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3. 기대효과

어촌에 즐기는 어업의 활성화를 기한다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적 효과는 어촌측과 도시측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日高健, 2002).

먼저 어촌측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째, 지역산업의 다양화<sup>18)</sup>에 따른 어업수입의 향상이라고 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도시민들과의 人的인 교류를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감과 수산물가격 또는 수산물선호 등 도시민들의 수산물소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유통의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직거래형태는 기존의 시장을 통하지 않고 새로운 유통경로를 형성하여 많은 유통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증가하는 해양성 레크레이션과의 조화를 통한 어업의 활동으로 어촌계의 수익사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관광어업은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기는 매우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어업이외에 수상스키, 수상요트 등의 마리나(Marina)사업과의 조화는 어업인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부업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

넷째, 어업의 생산시설인 어항은 향후 관광접목형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어항 주변의 낚시는 물론 일반도시민들의 왕래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항시설은 '도시의 광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어촌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도시측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째, 도시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정신적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촌에서 먹고, 놀고, 배우고, 편안한 감정을 누릴 수 있어 이를 통해 생활의 재충전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도시지역차원에서는 신선한 수산물의 값싼 구입을 비롯해서 어촌 및 어항 등의 용이한 접근과 개방을 통해서 환경, 문화가 있는 도시어메니티를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어촌과 도시의 인적 교류는 개인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차원을 넘어

18) 체험어업, 수산물의 현장판매, 용선료 등의 수입이 있을 수 있다.

### 제3의 어업 : 즐기는 어업

사회적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시킬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종래 폐쇄적인 어촌과 도시의 정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간의 교류는 상호 다른 지역자원의 발견과 활용을 통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사회적 정신적인 비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점은 어촌과 도시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쇠락해가는 어촌의 지역시스템에 도시의 에너지가 유입되어 그를 유지시켜 나가는 원동력의 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 V. 맺는 말

지금까지 새롭게 일컬어지는 즐기는 어업의 개념을 위시해서 몇 개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관광어업'이라는 용어는 이미 산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와 비슷한 개념인 '즐기는 어업'이라는 용어는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근래 어촌사회가 침체의 일로를 걷고 있는 작금의 어두운 현실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했다. 곧 어촌의 어메니티를 개선시키고, 제3의 어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즐기는 어업을 활성화한다면 우리의 어촌은 또 다른 차원에서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대한 민·학·관 공동의 체계적인 접근과 시행을 기대해본다.

다만, 본 연구에서 말하는 즐기는 어업이 기존 어업의 본질인 '수산자원의 생산'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즐기는 어업이 '제3의 어업'으로 공감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업의 본질과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김성귀 · 홍장원 · 박성우,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 김성귀 외, 어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 김승환 · 변문기, "쾌적한 도시 환경 창출을 위한 도시 어메니티 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18권 제4호., 1991
- 김준영, "사회친화적 도서관광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부경 대학교 대학원, 2002.
- 수협수산경제연구원, 어촌지역활성화 사례집, 수경연연구자료-3, 1995.
- 이광희 · 김영준, 체험관광상품 개발 활성화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9.
- 장병권,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개발방안 -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 문화관광연구 제 4권 제1호, 한국문화관광학회, 2002.

정기환 · 이상문 · 민상기,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농림부, 1999.

조영국, 박창석, 전영옥, “농촌 어메니티 인식의 구조와 의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 5권 제2호, 2002.

전라북도, 국제해양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1998.

전영옥, “문화자원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4.

황기형 · 이승우,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日高 健, 都市と漁業, 成山堂書店, 2002,



## **The Third Fishery : Enjoyable Fishery**

Kim, Soo - Kwan

### **Abstract**

While the life in the fishing villages in old days was characterized by accepting the sea as destiny by birth, it became an industrial one nowadays with industry - scale fisheries as the mainstream. It is expected, however, that nature - friendly life will be prevailing in the fishing villages in the future

In these days, the status of fishing village is on a very terrible situation due to the decrease in population, low income, environment destruction, and so on. However, the fishing village should be revitalized because of its public benefits at least.

Recently, a kind of affirmative appearance in fishing village is that people who are willing to visit fishing village are increasing. The fishermen are supposed to use this opportunity for its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This paper suggests a kind of way, enjoyable fishery after catching and farming fishery, to use it. Enjoyable fishery consists of watching (learning by observation) fishery and doing (experience) fishery. The example of watching fishery is inspecting the fixed net fishery, doing fishery is experience of small dragnet fishery.

The activation devices of the enjoyable fishery are suggested as follows; 1) fixing the identification of regional tourism 2)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njoyable 3) opening of one day's fisherman school. 4) networking with fishing village amenity improvement 5) driving sisterhood system with urban area.

Key words : Enjoyable fishery, Public benefits, Fishing village amenity, Regional tourism
--